

IPS-Empress II를 이용한 전치부의 심미적 수복증례

이춘근*, 한영 청아치과병원 보철과

상악 전치부의 심미적 수복을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Metal coping을 기초로한 ceramometal crown이 초기의 전형적인 수복 방법이었으나, metal coping 때문에 갖게되는 심미적인 한계 때문에, metal coping이 없는 도재 수복물을 연구 개발하게 되었다.

그러한 시도로 porcelain jacket crown으로부터 최근 In-Ceram, Empress II 까지 여러 종류가 등장하였다. porcelain jacket crown은 금속을 없애 심미적인 면을 많이 개선하였지만, 강도가 약하여 파절이 자주 발생하였다.

1965년 McLean은 강도가 강화된 alumina-reinforced porcelain을 개발 alumina core를 갖는 jacket crown을 개발하였지만, 이 또한 파절과 적합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후로 alumina 함량을 증가시킨 Hi-Ceram, Alceram을 비롯하여, leucite로 강화한 Optec이나 Empress, mica로 보강한 Dicor, glass infiltration에 의해 강도를 증가시킨 In-Ceram이 개발되었다. Empress는 porcelain core를 가소상태로 하여 주형에 가압형성 하는 것으로 porcelain 치관을 제작하는 방법이다.

이 crown은 투명감이 있고 지대치의 색조를 어느정도 반영하여, 매우 심미성이 뛰어나다. 따라서, Empress crown은 치아의 명도가 높고 투명감이 높은 젊은 환자에 있어 적절하다. 이에 적절한 case에 수복한 증례를 발표하고자 한다.